

전남광주특별시, 고용부 주관 일자리대상 대통령상 수상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등 생활밀착형 정책 전국 확산
AI 미래 일자리 기반·지역 고용위기 대응 성과 등 인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일자리 정책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과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수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일자리사업비 1억9000만원과 역량강화사업비 2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확보했다.

평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 전

국 확산 △인공지능(AI) 중심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지역 고용위기 대응 체계 구축 등의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노동 존중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생활밀착형 일자리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전국적인 정책 모델로 확산시킨 점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와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고용노동부 정책으로 채택됐으며, '산단노동자 조식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단근로자 편의의 아침밥' 사업으로 확대됐다.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 일자리 기반 구축 성과도 주요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AI 집적단지 1단계 준공과 국가 AI데이터센터 운영을 기반으로 352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하고 이 가운데 160개 기업을 광주에 유치하는 등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아왔다.

여기에 6000억원 규모의 AX 실증밸리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

고 AI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을 추진하며 미래산업 기반도 확대하고 있다.

유·초·중·고부터 대학, 실무 전문교육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AI 인재 양성 체계

를 구축해 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고용위기 대응 분야에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당시 신속하게 가

동한 대응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당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전담팀(TF)을 즉각 가동하고,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협력업체 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경제와 고용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생활밀착형 일자리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기업·인재를 연계한 지역 일자리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미래산업 분야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확대해 지역 내 일자리 기반을 넓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민행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장은 “이번 수상은 복지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성과”라며 “첨단산업 투자와 일자리를 연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 기회와 혜택이 320만 시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국경 넘은 나눔’ 목송그룹, 베트남에 ‘사랑의 집’ 선물

목송그룹이 베트남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전정마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물하며 국경을 넘은 나눔을 실천했다.

목송그룹은 최근 베트남 빈민성 김선현 포레에서 임직원 40명과 류재선 광주시 새마을회장, 광주·전남 베트남 교민 관계자, 현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빛고를 희망드림 사랑의 집’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전정마을을 가운데 주거 환경이 열악한 두 가구에 안정적인 생활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추진됐다.

주택 신축에 투입된 2000만원은 직장·공장새마을운동 목송협의회 회원들이 매달 적립한 회비와 목송그룹의 지원금으로 마련했다. 새롭게 단장한 주택과 함께 세탁기와 TV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전달했다.

목송그룹과 베트남의 인연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지역에서 생활하는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연을 맺은 뒤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남광주 서구에 고향 사랑가꾸기 최고액인 5000원을 기탁한 뒤 받은 150만원 상당의 답례품 포인트



최근 베트남 빈민성 김선현 포레에서 열린 ‘빛고를 희망드림 사랑의 집’ 준공식에서 목송그룹·광주시새마을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목송그룹

빈민성 다문화가정 전정마을에 주택 2채 새단장

임직원·회원 뜻 모아 건립비 마련...생필품 전달도

전액을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에 다시 기부했다.

전북 순창군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김 장 나눔과 떡국떡 지원에 나서는 등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며 다문화가족과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이명식 목송그룹 회장은 준공식에서

“평소 ‘나보다는 우리를’이라는 경영 철학

과 ‘공생·공존·공영’의 이념을 가슴에 품고 실현해왔다”며 “이번 빈민성 빛고를 희망드림 사랑의 집 준공이 성실하게 살아 가는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인 희망을 전하

고 양국 간 두터운 협력 관계를 다지는 귀중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 베트남교민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베트남 교민사회의 화합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양국 간 교류 증진과 상호 이해, 우호 관계 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주

한편 지난 1992년 설립된 목송그룹은 주택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지역 중견기업으로, 모회사인 목송산업개발㈜을 비롯해 최근 인수한 ㈜푸른종합건설 등 총 8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송하춘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는 최근 웅천친수공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되새기고 여성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나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청

여수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피해자 기억하며 평화·인권의 가치 나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는 최근 웅천친수공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되새기고 여성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나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여수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여수YWCA가 주관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여성인권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묵념과 기념식을 시작으로 주제영상 상영, 시 낭송, 위안부 헌정곡 공연 등이 진행돼 피해자들의 삶과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역사와 인권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전시를 비롯해 인권 체험부스, 위안부 포토존, 희망의 메시지 작성, 인권·폭력 관련 퀴즈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올바른 역사인식과 여성 인권,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경 기자 swg3318@gwangnam.co.kr

광주웨슬리신협, 70대 조합원 수천만원대 피싱 예방

직원 침착 대응 결과...광주경찰청 ‘예방 우수기관’ 선정

광주웨슬리신협 직원들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고령 조합원의 수천만원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19일 광주웨슬리신협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오전 10시께 70대 남성 조합원이 신협 온(ON)뱅킹을 통해 가입한 3000만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뒤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김성민 사원은 임영근 지점장과 상황을 공유한 뒤 인근 방림지구대에 신고했다. 경찰과 함께 조합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협과 경찰은 즉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진행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김성민 사원은 “처음 겪는 상황이라 당황했지만 평소 신협 내부 보이스피싱 예방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조합원을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확인한 결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웨슬리신협의 가족인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어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임영근 지점장은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은 신협인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신고·대응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광주경찰청은 지난 7월 31일 광주웨슬리신협을 ‘빛고를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감사장과 인증패를 전달했다.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7월31일 광주웨슬리신협을 ‘빛고를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감사장과 인증패를 전달했다.

앞서 광주 남부경찰도 지난 5월28일 112 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김성민 사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은 19일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동 국제회의실에서 김성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을 초청, 'AI시대와 전기국가'를 주제로 제280회 산학협동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산학협동연구원, AI시대 ‘전기국가’ 미래 조명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 초청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이사장 김보곤)은 19일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동 국제회의실에서 제280회 산학협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연구원 회원을 비롯해 전남광주지역 학계와 기관·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김성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이 'AI시대와 전기국가'를 주제로 강연을 연했다. 김성진 이사장은 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AI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떠오른 전력산업의 역할을 공유했다.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은 산업계와 학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월 설립됐으며,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산학협동포럼을 열고 있다.

포럼에는 산업계 최고경영자와 대학교수, 각계 전문가 등이 강연자로 참여해 경제·영역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산학연 관계자 간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